

진안고원물, 효도 선물 할인 판매

오늘 어버이날 맞이 전품목 20% 할인·라이브커머스 등 진행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물'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전 품목 20% 할인행사와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진안고원물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효도용 선물로 좋은 각종 선물 세트와 가공식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특히 3일 14시~15시 30분까지 진안군수 품질인증 받은 품안에영농조합법인(이하 품안)의 홍삼엑세트와 환절기 기관지에 좋은 농업회사법인 능길의 도라지배즙 등 두 제품을 네이버 쇼플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가로 할인 판매한다.

라이브 진행상품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최대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인증을 통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는 품안에영농조합의 '진안고원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HACCP)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진안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진안군수 품질인증은 진안군홍삼연구소의 검사에 따라 진안산 원료삼을 이용해 만든 홍삼제품 중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안전성을 검증하고 진세노이드 및 사포닌 함량 등 성분함량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인증하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능길의 '더순한, 더진한 도라지배즙' 역시 HACCP인증을 받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친환경 제품을 가공해 생산하고 있다. 도라지배즙은 취향에 따라 더진한 맛과 아이들에게는 더순한 맛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3일 하루 종일 진안고원물 전 상품에 대해 20% 행사를 진행해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더불어 모바일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선물이 가능한 '선물하기' 기능도 활용하고 있어 손쉽게 선물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 완화에 따라 어버이날 및 스승의 날 고마운 사람들을 찾는 걸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마음을 좋은 품질의 진안고원물 상품을 선물하며 표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민 섬기며 군민 주인인 군민정치시대 열겠다”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지난 1일 선거사무소(무주읍 적전로 반딧불시장입구) 문을 활짝 열고 '군민정치시대'를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참석해 황인홍 후보의 6.1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하는 등 그 세를 결집했다.

지지자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연단에 선 황인홍 후보는 "민선 7기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층 더 성숙한 무주군정을 다지고자 황인홍이 다시 한 번 2만 4천여 무주군민 앞에 섰다"며 "민선 8기에는 반드시 경제와 소통을 통해 군민을 섬기며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자연, 농업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무주의 미래를 우리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목소

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군민 모두가 즐겁고 국민 모두가 감탄하는 무주관광, △다함께 키우고 벌어들이는 소득농업, △다함께 누리는 주민복지, △다같이 만드는 지역개발, △미래를 지향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다짐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빚어놓은 난관을 당당히 헤치고 엔데믹 상황에 군정을 슬기롭게 적응하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가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가 지난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앞으로 6개 읍면 마을을 돌며 민선 8기 황인홍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데 집중할 방침으로, 선거사무소는 주민들에게 개방해 무주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황인홍 예비후보(66세)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민선 7기 제45대 무주군수직을 수행해왔으며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2018.9.~현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2018.10.~현재) 등도 역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장수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군청 민원실과 납원세무서가 합동 연계 운영하는 도움창구는 복잡한 소

득세 납부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불편 해소 및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군청 민원실 및 납원세무서에서 모두채움대상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창구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두 개의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지난 3월 온라인으로 협약을 맺고, 지난 30일 외국인 근로자 48명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진안군, 계절 근로자 입국 시작

군-필리핀 이사벨라주 협약으로 48명 입국

진안군은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간(3~5개월)고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지난 3월 온라인으로 협약을 맺고, 지난 30일 외국인 근로자 48명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을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입국 당일 보건소 협조로 관내 격리시설에서 PCR검사 후 하루 격리를 거쳐 음성을 통보받게 되면 미리 근로자 수요조사에 응한 농가 21개소에 배치하게 된다.

군은 근로자의 농가 배치에 앞서 근

로조건,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의 '농가(고용주)교육' 등을 선행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추가로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도 추진한다.

이는 베트남을 통해 추진하게 되며, 이들이 입국할 경우 상반기 진안군 해외 입국 계절 근로자는 100여명에 이르게 돼 국내 부족한 일손을 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발생 후 첫 입국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농가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재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도 일상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흥교)은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 약 3개월여 간의 휴관을 마치고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일주일의 자율이용기간을 가진 뒤 5월 2일부터는 본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관 이용은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며, 복지관 출입 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을 진행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 개강 전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 이용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한산했던 복지관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복지관을 찾은 조 모 어르신은 "복

지관이 다시 문을 열어 기분이 아주 좋다"며 "문 닫은 집에서 앉아 있거나 누워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복지관에 나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흥교 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르신들께 심신의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역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비대면 독거노인 돌봄 프로그램인 '안녕 메이트', 저소득 어르신 주방조리기 교체 지원사업인 '전차레인지는 사랑을 싣고' 등 6,800여 만 원의 6개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활발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일부 지원

무주군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집들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경우 집들이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민 적극 유인과 농촌 활력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대 당 30만 원의 집들이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떡, 다과, 도시락, 기념품 등 집들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지역주민(최소 5명)을 포함한 집들이 희망자다.

단, 대상자 선정 이전에 집들이를 시행했거나,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주 지원 및 기 지원 받은 세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집들이 계획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1회 진안읍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진안군 진안읍(읍장 정상화)은 지난 1일 제21회 진안읍민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진안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창열 부군수(진안군수 권한 대행)와 군의원을 비롯해 재경·재전 향우회원, 기관사회단체장, 읍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 작년 이어 올해도 체육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읍민의 장 시상 및 기념사 등 최소한으로 진행했다. 식전행사에는 가수 서운, 김덕건의 노래와 민요공연, 난타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진안읍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상화, 읍장)를 통해 선정된 이우석(문화체육장), 김창주(공익장), 류경희(산업근로장), 서영란(애향장), 효열장(원양태)씨에게 읍민의 장을 수여했다.

또한 우수이장으로 뽑힌 정경철(연구2동), 김명규(구문마을), 김강선(언전마을)씨와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임성준 주무관과 박윤진 주무관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